



1. 教會에 革新을
2. 社會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바 벨 탑

창세기 11:14~9 丁仁壽 牧師

우리는 제발 바벨탑을 쌓는 자가 되지 말자. 각기 자기는 가장 잘 믿는 자 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있다. 셀의 자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였다. 저들은 인력으로서는 아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었다. 중국에는 자기의 힘과 제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오늘이 따우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도 이와 같은 사고 방식으로서 믿고 살고 있다. 벌써 죄의 그물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죄의 그물에 걸린 결과가 그 생애에서 아래와 같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1. 자기중심이 너무 심하다
가인이 동생아벨을 칼로 쳐서 죽인 그 원인도 케여 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 될 때에 거기서 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차차 커질 때에 결국에 가서는 동부 동생을 죽인 살인 범죄인이 되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무한정이다. 이 세계것을 혼자 다 차지하여도 또 다른 세계에 무엇이 없는가 그것도 취하여야 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게 된다.

이와같이 인간은 자기중심이 될 때에 모든 사고방식이 자기로서 부터 시작이 되니 타인에게는 유익을 줄 수 없고 손해를 끼치게 되어진다. 여기서 발생하는 죄의 결과는 크고도 많다. 부모형제간에도 원망과 다툼이 발생하고 교회와 교회사이에 교인과 교인사이에 분쟁과 불상사가 일어난다.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교회 중심이 되고보니 기독교나 비기독교나 차이가 없

게되었다.
오히려 불신사회가 우리 기독교가 보다 더 압전점이 많게 되어서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지도할 지위에서는 불신사회에게 박탈을 당하고 말았다.

2. 허영심이 너무 과하다
오늘의 기독교 신자는 지도자로 부터 평신도까지 허영심을 다 빼어버리면 서지 못하고 넘어질 듯 위태하다. 우리 기독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귀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여야 하겠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듣는 자에게는 감명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어찌있는가 우리의 생애가 너무 허영심에 빠져서 진짜 자기자신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거짓의 생활을 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통분할 일이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이 주신 그 맑고 맑은 양심 대로 살 것이다. 오늘의 신자가 이 민족의 양심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 양심을 짓밟고 살고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인가. 또 가장(假裝)의 생활을 버려야 하겠다. 이와같은 기독교 사회에서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양심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여주어야 하겠다. 내가 아무리 가장을 하여도 나를 대하는 상대방은 알고 있다.

제27회 정기 총회 개막

세대교체 새조직으로
기구개정도 통과되어
신임총회장에는 김득삼목사

1971년 10월 12일 오후 두시 정각에 大阪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에는 총회장 김득삼목사의 설교와 전영복목사 사석하성찬예전을 거행하였다. 총대 74명 중 53명 출석으로 성회되어 임원 개선행기전에 총회의 의사전체를 혁신하는 헌법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총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기구개조의 내용으로 개헌되는 안전인지라 축조 심의에 의견이 격발되어 신학적인 발언과 경험과 상식을 주창하는 의견 건덕을 주창하는 의견도 강하여 끝모르는 토론이 벌어졌다.

마침내 축조 거수가결로 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시대의 흐름속에서 선교를 지니고 나가는 교회의 새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근일 총회내 청년문제가 시비되어 있는 현상에 반응되어 청년대표의 의견진술을 따라 차회부터 총회준총대로 청년대표 3인 여전도회대표 3인을 허락하기로 하였다. 총무 이인하목사를 재임명하였다. 신임임직원개선에 들어가 개정된 헌법을 따라 임직원을 선출하게되자 분의기는 일신되어 세대교체의 흐름은 파도와 같이 총회전체를 새롭게 하여 신임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득삼목사
부회장 윤종은목사
김광수장로

서기 황재정목사
부서기 이창우목사
전도국장 김덕성목사
교육국장 홍동근목사
사회국장 김재술장로
재정국장 김한필장로
인사국장 김득삼목사
현의안토의에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1. 장로장립청원으로서 横濱교회 2명 東京교회 2명 京都교회 2명 川西교회 1명 大阪교회 2명 豊橋교회 1명 宇部교회 2명 각각 허락되다.
2. 한일성경출판과 아동용 한일찬송출판권을 가결
3. 三宮전도소보조요청진과 小倉교회담골당설보조요청진 布施교회건축비보조요청진 品川교회건축

비보조요청진등을 각각 재정국에 일임키로 함.
4. 北海道札幌에 배당건설건은 총액 340만원을 총회석상에서 총대헌금으로 증당하기로하여 당일에 180만원 헌금작정되다.
5. 在日大韓基督教會와 카나다장로교회와의 교환서를 원안대로 결의하였다.
6. 적십제사 남북협상회의에 관한 총회선명서를 공포하기로 결의
7. 통산재정 예산안 수지총액 18,727,200원으로 통과 하다.
8. 내회장소로 西成교회를 예장하였다.

이 상

KCC 개관식 거행

재일 대한기독교회가 역사적인 계획으로 건설한 재일 한국기독교회관(KCC) 개관식을 1971년 10월 13일 오후 2시 정각에 개최하였다. 전교 10개년 계획위원회 총간사 전영복목사의 사회로, 정인수목사의 기도와, 오운태목사의 설교가 있은 후 KCC 건설위원장 김창업장로의 연희보고에 이어 내빈축사로, EACC 도시산업전도부간사 오재석씨와, 일본 NCC 부총무 마니아목사, 카나다장로교회대표, G대비스목사 한국대표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장하원목사 大阪한국인상공회회장 김용대씨 大阪상은전무이사 김상옥씨 일본기독교 宇崎竹三郎목사 大阪YMCA 총주사 世戸一夫씨등 각각 축사가 있었다.

이인하목사가 축문축진을 피로하고, 판장 유석준장로의 감사인사와 김덕성목사의 축도로 약 200명회집성대히 개관식을 마쳤다. 마침, 개관식을 더욱 빛나게하기 위해 본국에서 도착한 서울윤경주부합창단의 48명의 여성합창이 공연되어 역사깊은 한국민족의 정서에 넘치는 노래에 도취하여, KCC 개관을 길이 기념하게 되었다.

文書主日함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서 영수를 대신 하오니 양해 하여주시길 바라오며, 아직 미납교회는 조속히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大阪 40,630
川西 5,000
平野 13,055
布施 12,000
西成 30,000
岐阜 3,000
築港 3,400
岡崎 2,000
西新井 9,250
武庫川 5,000
名古屋 20,687
京都 40,000
下関 3,000
桑名 2,000
岡山 3,000
水島 2,500
堺 15,000
春木 2,000

이상 보고 합니다.

혹시 누락된 교회가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文書委員會)

南北赤十字会談 支 持 声 明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 소속信徒들은 南北으로 分断된 祖国의 悲劇을 몸소 느끼면서 南北民族의 統一을 爲하여 계속 仲保의 祈禱를 드려왔다.

마침내 離散된 南北의 家族 찾기의 人道的인 問題로 南北赤十字會談이 急速度로 成立되어 南北代表들이 韓字리할 수 있는 소식은 日本에 사는 61万同胞들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던져 주었다. 国土分断은 祖国뿐만 아니라 海外에 사는 우리들 사이에도 自然스럽지 못한 生活을 억제해 왔다.

따라서 금번 南北赤十字會談에서는 괴차의 政治的인 主義主張이 止揚되어 全民族이 權益이 優先되는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또 이것을 契機로 祖国의 平和的인 統一과 民族의 和解가 이룩되기를 主 그리스도 안에서 祈禱하며 第27回總會를 맞이함에 있어서 在日大韓基督教會 信徒一同은 최선의 努力으로 이에 이바지 할 것을 表明한다.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に所属する信徒たちは、南北に分断された祖国の悲劇を、身をもって経験しながら、南北民族の統一のために、とりなしの祈りを続けて来た。

時まさしく、南北の離散家族さがしの人道的問題を契機に、南北赤十字會談が急速度で成立し、南北代表が席を同じくすることが出来た知らせは、日本に居住する61万同胞に大いなる喜びと感激をもたらした。国土分断は祖国だけでなく、海外に居住するわれわれのうちにも不自然な生活を強いて来た。

したがって、この度の南北赤十字會談では、お互いの政治的主義主張が止揚され、全民族の權益が優先される実りがもたらされることを希望する。そして、これを契機に、祖国の平和的統一と民族の和解がもたらされるよう、主キリストにあって祈願し、第27回總會を迎える、在日大韓基督教會信徒一同は、最善の努力をもってこれに貢献することを表明する。

1971年10月14日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

總會長 金 得 三

복음신문 한국지사 설치

제일 대한기독교교회총회 문서위원장 정인수목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이미 협상하여오던 복음신문한국지사설지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계약서를 교환하였다.

복음신문한국지사장 이창식 씨와
1971년 8월 18일

계약서 교환

<계약증서>
금반 대한민국 일원에 복음신문한국지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복음신문사를 "갑"이라고 칭하고 한국지사를 "을"이라고 칭하여 하기 사항을 약정함.

제1조 "을"은 대한민국 일원에 한하여 복음신문의 보급 판매 광고

를 취급하기로 약정함.

제2조 "갑"은 "을"과의 계약이 체결되면 "을"에게 계약부수 한도내의 신문들 3개월간 무료로 송부하기로함.

제3조 "을"은 본 계약기간 중 타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취급 판매 또는 기타 간행물을 "갑"의 승인없이 취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함.

제4조 다음 각 조항을 위반할시는 하신라도 "갑"은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함.

1) 본사 및 해당 영업구역내에서 창기되는 불미한 사건이 발생할시

2) 형사문제가 유할시 제5조 "을"은 지사 경영시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책임지기로 하며 지대 및 광고료에 대하여는 "갑"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함

후일을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 각 일통씩을 보관하기로함.

로함.

서기 1971. 8. 18

본사 :

갑 주소 日本大阪市西成区梅通5-2

대표서명 丁 仁寿

지사 :

을 주소 서울特別市鐘路区蓮池洞基督教會館內 303호室
성명 李 昌 植

지방합동안은 연구보류키로 하다. 이상

제22회 관서지방회

1971년 9월27일 서성교회에서 개최, 각부 각기관 경과보고로서 일년간의 활동과 지방회의 현상향상을재인식하였다. 신년도 임직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회장 김원치목사 •부회장 윤종은목사 •서기 이창우목사 •부서기 황재정목사 •회계 김관옥장로 •부회계 김만준장로 •전도부장 전영복목사 •교육부장 홍동근목사 •청년부장 윤종은목사 •부녀부장 정인수목사 •후생부장 유석준장로 •시찰부장 김덕성목사 •시찰부장 안영준목사 •치리부장 김원치목사
현의안은 다음과같이 가결되었다. 1.川西교회 장로 1명장립청원 허락 2.大阪교회 장로 2명증원청원허락 3.京都교회 장로 2명증원청원 허락 4.西宮교회 장로 1명장립청원 허락 5.한일대조성경 인쇄요청건가결

6.아동용 찬송가를 일어난 역을 점부하여 인쇄하기로 가결 7.布施교회 건축비보조요청건 상정키로 가결 8.広島지역을 관서지방회판활에 두기를 요망하는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가결 9.예산안 수지총액1,184,366원통과 이상

黃 在 正 牧 師 別 世

武庫川教會 시무목사 黃在正목사가 10월23일 밤9시에 별세 하였다. 현직목사로 별세한일은 처음이라는 총회에서는 목회전선에서 생을 마친 교역자의 신분과 그 일생을 귀히여기는 뜻으로 지방회장으로, 장례를 이루기 위하여, 관서지방회장 김원치목사 사석하 25일 오후 2시 武庫川교회당에서 무려 200명의 회장으로 성대히 고별식을 거행하였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순희씨와 어린 1남2녀의 자녀들이 있다. 장례를 위하여 기도하 물결로서 도아드리기 바란다고 한다.

2년전 뉴우지랜드 유학을 마친 40세 청년목사로, 금년총회시 총회서기로 피선되어 앞날총회의 중견인물로 촉망을 받을때라, 애석하기한이 없다 한다.

四 地 方 회 개 최

총회내 서남 관서 중부 관동

4 지방회 각각 개최

9월은 지방회의 달이라. 해마다 四지방회가 개최되는데 금년은 특별히 1971년의 역사적변혁을 세계가 기원하고 있는 해요, 우리 총회로서는 교회의 체질을 혁신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는 해로서 총회전에 지방회가 극히 진지한 자세로 교회의 근본체질과 시대적자세를 검토하고 준비되기를 요망하고 있다.

제21회 서남지방회

1971년 9월14일 福岡교회에서 제21회 서남지방회를 개최하였다. 각부 보고가 끝난후 임직원개선에 다음과 같이 새임직원이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서남지방회 모든 사업을 장리하게 되었다.

•회장 김득삼목사 •부회장 최창화목사 •서기 한재수목사 •부서기 김형식목사 •회계 최영모장로 •부회계 이종섭장로 •전도부장 홍영기목사 •교육부장 김형식목사 •청년부장 대비수목사 •부녀부장 한재수목사 •후생부장 이선조장로

결의된 현의안은 宇部교회장로2명 장립요청건이 허락된 안건이며 금번 총회에 현의될 총회헌법개정안에 관하여 장시간 검토와 의견교환과 요망등 나누어 모아 총회에 올라갈 자세를 가추었다. 이상

제22회 관동지방회

1971년 9월15일 川崎교회에서 관동지방회가 개최되었다. 관동지방회의 특색은 회의식이라기보다 간담회형식으로 각교회의 현상을 자세히 보고하는에 있다. 각교회의 현상과, 각부서의 보고가 있은후 다음과 같이 선임임직원을 선정하였다.

•회장 오윤태목사 •부회장 김성하장로 •서기 김계호목사 •부서기 강중구장로 •회계 권태악장로 •부회계 이

영흥집사 •전도부장 맹철휘목사 •교육부장 이인하목사 •부녀부장 심은택전도사 •청년부장 최경식목사 •후생부장 윤관병집사 •치리부장 오윤태목사 •감사 김관필장로, 이성주목사
결의된 현의안은 다음과 같다.

1.관동 중부 양지방회합동건은 일년간 연구 보류키로함 2.横浜, 川崎, 各교회 각각 2명씩 장로장립청원 허락. 3.品川교회건축비보조요청건은 상정키로 결의 4. 東京교회 장로장립청원 계속건은 허락 5.北海道札幌교회당 구입요청건은 상정키로가결 이상

제8회 중부지방회

1971년 9월24일 名古屋교회에서, 제8회 중부지방회가 개최되어, 젊은 목사가 주동되는 특색있는 지방회를 개막하였다. 다음과 같이 선임임직원을 선정하였다.

•회장 김승준목사 •부회장 황의생목사 •서기 박헌섭장로 •부서기 이해춘장로 •회계 김광수장로 •부회계 김재룡집사 •전도부장 박명준목사 •교육부장 황의생목사 •사회부장 서영균장로 이상과 같이 금번에 총회에서 통과될예산이 강한 기구개정안을 비취, 부조직을 축소하였다. 현의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豊橋교회장로 1명장립신청 허락 2.관동 중부 두

여전도회 11월 월례회를 위하여

영혼의 양식

I 데살로니까 5:18

감 사 기 독

우리는 항상 모든일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목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으로부터 먼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앞서 계신다는 것을 잊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감사에서 부터 비롯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진정한 깊이를 갖어오는 때는 마치 압박의 나뭇속에 파묻힌 제란 같이 하나님의 은혜안에 완전히 싸 안긴 때이라 하겠습니까. 그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회의 기도와 함께 감사의 기도는 두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라도 없을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하기에 오늘날 너무도 어려운 고난속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큰 일을 이룬이들은 안일 한 때보다 오히려 역경속에서 더욱 참된 보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신앙의 시인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후 그 위험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께 배운 바를 감사 하며 노래 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맞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고 요긴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참된 감사는 참된 믿음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끝나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럼으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아주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살아

가는 모든일을 주께 따르고 기쁠때나 슬픈때나 피로운때나 법사에 나에게 축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사랑안에 있는 자들의 감사는

그저 달콤한 입설만의 것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골로새 2:7)로써 더욱 비장한 것입니다.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중하기 양 어깨를 누를 때 고난의 한 복판에서 오히려 고요이 감사기도를 드릴수 있는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죽음의 영역을 넘으신 대능의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총 무 이 영 숙)

北海道に韓国教会



土地 34坪
建物 木造二階建 延30坪
価格 340万円(土地建物)
契約 1971年11月30日全額支払
送金宛
札幌市月寒252-15
〒061-01 李聖柱 牧師

第27總會の『志向』

第27回定期總會が3日間に亘って、在日韓国人の生きるすべてに責任を負わされている、キリストの教会として、宣教と教会形成の為に熱心な討議の場として開かれた。組織としての制約もあって、牧師・長老の集りではあるが、性格は教会の多数を占め、宣教の対象としての大きさを持つ、婦人・青年の存在と意思を代表してのものであった。

27回と言えば、既に建設期を乗り越えて、形成と発展、使命遂行の時期である。こうしたことが反映してか今年には、新しい機構改革を含む憲法改訂案が討議され、通過された。時を移さず、新任役員改選に總會全体の世代交替としての結果が生れた。新總會長に金得三牧師、副會長に尹宗銀牧師、金光洙長老、書記に黃在正牧師、副書記に李昌雨牧師が選ばれた。伝道局長・金徳成牧師、教育局長・洪東根牧師、財政局長・金漢弼長老、社会局長・金在述長老が各々選出され、従来の總

会運営の顔触れが大半、刷新された形となった。特記すべきことは次回總會より、婦人代表3名、青年代表3名が準總會として出席することが決議され、今年度、12名の長老が按手されると言う。過去26年間に見られなかった、画期的な決議がなされ、方向づけられた。革新、世代交替と言った感を深うしたのが、今總會であった。発展的な最も堅実な形に於ての革新であり、飛躍としての世代交替であった、と言う事が出来よう。又革新とは言え、機構の一部が組織として改訂されたまでであり、世代交替と言っても40代の牧師達であって、前回までの今日にして老年と言われる牧師達も、30才40才で總會の責任を負う役職に任ぜられたのであったことを思えば、若い世代の總會として、世代を交替したとは言えないものであるとも言えよう。我々がキリストの教会として願うことは、こうした形としての革新とか、交替とか、言うものでなく、実質的な革新であり、新陳代謝でなければならない。教会が新しく、蘇生し、若やぎ、充実した体質改善がなされることが肝要である。總會が古い世代の老化した状態から脱皮することが望まれてやまない。

1年1回開かれ、教会の至上的な問題を実践するための討議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總會が、事務的な組織運営の為の討議に終始され、自己主張の場として論争と喧騒を繰り返して来た老化状態から、脱け出し、真のキリストの肢体としての教会となり、教會總會の本質と性格を取り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本来、教會は老化すべきものではなく、老化し得ないものである。ヴィルヘルム・ニーゼルが言っているように「教會が教會として存続するためには、絶えず神の言葉にしたがって改革され、新しくされねばならない。」のが教會である。最も正しい意味に於て、次の第28總會も改革される、新しくされる總會とならねばならない。それでなければ、又、老化され行く總會とならざるを得ない。そこで、真実に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第27總會が何ういうように改革され、新しくさせ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かであってこれは、在日韓国人教會の構成されている、あらゆる層に於て、各々が自分の問題として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ある、各々が自分の改革自分の働きの改革、自分の思

考の改革、自分の役割の改革として、問われていることに直面して、真実に考えねばならない問題である。青年が總會を批判し、總會が青年を責めている間は、老化症そのままでのものであって、行けども行けども革新はなされない。牧師は自分の革新を、長老は自分の革新を、青年は自分の革新を、婦人は自分の革新を第27總會に於て、どのように問われているかを、真剣に考えねばならない。この為に第27總會が革新の形として結果づけられたのである。自分の革新をどのように考えるかは、今日まで皆が皆持っていた、自己主張を、自分への他からの声として考え直すだけでも、答えを得られることであろう。總會への強い要望と主張を、自分に要望されているものとして、自分の責任、自分の使命、自分の役割への強い要望であり、主張であると受けとめ、自分から革新され、新しい決意と希望と意欲をもって勇気づけられ、実践して行くようになれば、第27總會は、在日大韓基督教會の革新となり、新生となり、素晴らしい飛躍への足場となるのである。

목사 안수식
거행

1971년 10월 13일 오후 7시 제27회총회석장에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였다. 총회장 김덕성 목사 사직하시취국장 오윤태목사의 설교가 있은 후 1971년도 목사시취에 합격된 이태우와 독일에서 귀임한 김군식 두목사에게 안수하여, 새시대에 총회교회를 담당하는 새일꾼을 세웠다.

이태우목사는 동경한국YMCA간사로 청년목회에 그대로 봉사하게 되어 있으며, 김군식목사는 독일유학 8년의 학구열수의 기능을 발휘하는 청년목사로横浜교회에서 목회봉사하게 되었다.

(4면より)

砕の覚悟を以て当るのが正義・誠の精神、闘争の精神である。相手にこの事を知らしめない限り、諸国が寄ってたかって俎の上で切って食っちゃうであろう。在日韓国人が望み得、生きる神学は、この闘争の神学だと思う。我々に求められているもの、それは、この正義・誠の精神なのだ。(終り)

所在地

札幌市美園1条3丁目8-2



聖書

神の言葉は真実である

箴言 30:1~9 金元治 牧師

1. 神の言はもろ刃の剣のように生きて、罪の根を絶ち切り良心に深く入り込んで恥をもさらけ出す(ヘブル 4:12) 自分の目にある梁を認めて、その梁をぬき取って、自分がまず正しくなってから、兄弟の目からちりを取り除く人でなければならない(マタイ 7:3~4)。心の清い人が神を見るときは、このことである(マタイ 5:8)。私たちは自分の信仰が他人の罪のために動搖を来たすように錯覚をおこす時がよくある。それは自分の罪のせいであって、他人の罪があるから私が信仰的に脱落者になる理由は一つもない(エレミヤ 31:29)。隠れた所で犯した罪であっても、必ずこれが現われるのである(ルカ 8:17)。だから主イエスはパリサイ人に対して、心にある悪があふれて口に語るのである、と責めた(マタイ 12:34)。

2. 聖書は神の靈感によって書かれたのであり、人を教え戒め、正しくし、義に導くに有益である(第二テモテ 3:16~17)。しかも神の人があらゆる良いわざに準備ができて、完全に整えられる。人が未成年であるか学生時代であるなら先輩や教師に教えられるが、大人になっていよいよ人から教えられることも忠告されることも少ないし、またいやがるのである。しかし神の言に楽しむことによって義を教えられ良心に苛責されて神の言を実行に移すようになる(ロマ 15:14)。神の言によって人間は心の内にある欲望や悪意を未然に防ぎ止めることができる(箴 25:28)。我々の内にある罪をそのままにしておくに死に至るのである(ヤコブ 1:15)。

3. 神の言は私たちに對して罪の苛責を受けさせるだけでなく、その足りない力の弱さに悩む時や、悲しんでいる時に慰めを与える(マタイ 5:4)。義に飢えかわく人には飽いてくるようにさせる(マタイ 5:8)。神のみこころにそうした悲しみは、悔いのない救いを得させる、悔い改めに導き入れる(第2コリ 7:10)。力の弱い者に力を与えて勇気をわかせる。神の力はその言葉を通して慰めを与える。あらゆる艱難の中にある人々を慰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

下さる(第2コリ 1:4~5)。目を覚して祈るように命じた時に祈りもせず眠ってしまった。心は熱しているが肉体は弱いのである、と同情して

下さった(マルコ 14:38)。神の言は真実であるから私たちもこの力によって悪から遠ざけられ慰めと勇気とを与えられる。

聖地研修旅行記(3)

下関教会 洪永其 牧師

これは、処女マリアに天使が現れて受胎を告知した処に建築した教会である。この教会はフランシスコ派が1730年創立し、今の大会堂は1955年に竣工したものである。中には地下の洞窟が受胎告知の行なわれた場所がある。二本の柱が立っているが一本は天使カブールの現れた所、他はおとめマリアのいた所とことである。大理石の岩やに Verbum Caro Hic Factum EST. (ここにみ言は肉体となりたまえり)と刻まれている。町には小ロバを引いてあるく少年達がいて、一回20ポンド(1ドル 30ポンド) ぜひのつてくれと云うのだ。それはイエスがロバをのつたからだろう。少し離れて北側にある聖ヨセフ教会がある。1914年の建立である。これはヨセフの家の上に建てたものであると云う。ヨセフがのこぎりを持ち、マリアは紡ぎ、少年イエスに十字架の作り方を教えている油絵が掲げられている。この北側10分ほど下った所にマリアの井戸があって、新約外典によると天使ガブエルがこの泉のそばでおとめマリアに現われて、あのルカの福音書にある様に受胎告知したのであると云う。ギリシャ正教はこれに従って、この泉のそばに建てた。聖ガブリエル教会こそ、真の受胎告知教会であると云っている。教派によって、その場所が異なるのは納得がいかない。こうして主の遺跡が、すべて原型を変えて大会堂におおわれていることに、何か反発を感じた。そこからガリラヤに向う途中、カナについた。カナは人口 1,500人にして古い町に見える。イエスの弟子ナタナエルの故郷であり、イエスが最初の奇蹟を行った町である。

ヨハネ2章1~11に記されている。この町の人は全部アラブ人であり、昔は4,5千人住んでいたそうだが、今はさびしい町だ。中央にギリシャ正教会やラテン教会が建っている。これは水をぶどう酒に変

えた奇蹟の記念教会だと云う。車はすぐガリラヤ湖に向かって進んだ。

ガリラヤ湖は実にすばらしい。私は一生忘れられないだろう。山々に囲まれた三角型湖だ。水は清く透明である。飲料水にしているほどだ。魚の群れが泳いでいるのが見える。37種の魚が住んでいて、その内16種はこの湖の特有のものであると云う。中でも興味深いのは「ペテロの魚」と呼ばれている、ティラピア・ガリレアである。この魚は口内で卵をかえし、その子魚が自活できるまで口内で育てると云われている。ペテロの家と云われるそのとりにカペナウム教会がある。ここはイエスの宣教の中心地であると云う。イエスがエルサレムとカペナウムは最も愛した町であった。それなのにこの町は悔い改めて主を信じようとはしなかったのである。その結果全く廃墟と化してしまった

(つづく)

斗争の神学 -10-

岐阜教会

金承俊 牧師

「闘争的なものは現実的であり、現実的なものは闘争的である。」これが私の根本思想なのである。ではこれと聖書の基督教とがどう結びつくのであるか？ 私は、「破壊的なものは創造的であり、創造的なものは破壊的である。」と思っている。では、いつ闘争的なもの、破壊的なものが、現実的で、創造的となるのか？ これはイエス・キリストに於ける天地創造(創 1:1~3, ヨハネ福音 1:1~5)を考えることなしには把握し得ないであろう。神は闇や淵をも包んでおられるのであるが、死、暗黒、無等の否定的な消滅への傾向に対して、肯定的な、形の出来る事を喜び給い、それに生命を注ぐ事によって、その破滅への傾向に打ち勝って生命の躍動を備え給うた所の神の業が天地創造である故に、神の霊力の支えなしには、一切があの否定的な無への消滅、形なく、空しい混沌と闇へと陥し入れられる他なき存在に過ぎない訳である(詩 104:29~30)。所で、この天地の創造主なる神が、同時に破壊し給う神としても現われ給うている(創 7, 8章)。それは地に悪がはびこり、神の前に乱れて暴虐が地に満ちた時(6:5

~13)である。「私は、全ての人を絶やそうと決心した(13節)」とある言葉は実に戦慄を覚えさせるものである。残酷なる神と云われる所以がここにある。しかし、我々が最も注目すべき言葉があるのを見落してはならない。「主は地の上に人を造ったのを悔いて、心を痛められた(6:6)」という事である。破壊、絶滅心というものが、神の痛み、憐れみに裏付けられているという事実である。この事が無視されれば、闘争の神学も、恐るべき、悪魔的な、いつも破壊的で、全てを混乱に陥し入れて了うものにしか過ぎなくなる。事実はその通りで、神が恵みによって、御子主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天地を創造され(ヨハネ 1:3) たのであって、御子なしには、神は焼き尽くす火(ヘブル 12:29) そのものであり、恐るべき方だ。彼の前では一切が消滅し去らざるを得ない方(出 19:16~21)なのである。それ故に、破壊的なもの、闘争的なものが現実的な、創造的なものとなる中心には、イエス・キリストが立ち給うているのである。又、逆に、現実にあるもの、創造されたものが、罪と腐敗に深く沈んで行く時、愛と、

心の痛みで裏付けられて、イエス・キリストの精神に於て破壊すること、闘争する事が、創造的、現実的に繋がるのである。そして、現実の一切がイエス・キリストに根據をもち、現実の中心にイエス・キリストが立ち給い、無も有も自らのうちに包み給い、しかもなお、一切を貫いて、厳しい正義の精神、誠の精神が根底に働いて、これがイエス・キリストへと通じているのである。それだから、自己に向かつて、自己の為に生きるように出来ている人間の中から、他に向かつて、他の為に生きる人間が、イエス・キリストの霊に触れて出て来る訳である。こうして時には自己に向かつて力強く生き、又時には他に向かつて強く生きるという様になる訳である。しかし、それでも全く自己を離れての働きは考えられないのである。同民族だとか、同領域に住んでいるとか、同団体に属しているとか、何か我々と云い得る意識なしに、ただ漠然と全人類の為だとか等は現実からは、かけ離れ過ぎなのである。この事は現実の我々は、その時代、領域等の制約を受けている事を意味する。しかし、生活様式や、表現は異なっている、その時代の人間が、何と対決しようとしたか？ いかなる精神でどう戦って行ったか、又創造して行ったかという事は、全歴史が学びうる、創造的な掛替えのないものであろう。地上のあらゆる文明は創造されては、破壊されて行った。歴史を支配し給う神は、或る時は、ある民族を起し給い、ある時は、この民族を他の民族を以てて絶滅し給うた。しかし、彼らが、事実、生き、戦い、滅んで行ったことは、歴史の続く限り、伝えられて行くであろう。彼らが滅される時は、きまって、国が無力化した時、精神の焼き尽くすが如き炎が消え去った時、戦いに破れた時である。しかし、より正義、誠の精神に基づく民は、又立ち上がる力を内に秘めていたのである。とにかく、一度、創られたものは、必ず滅びる運命にあうか、破壊が要請される時が来るであろう。それが、正義の声から叫ばれるものであるなら、固執してはならず、破壊し尽くさなければならないし、もしも侵略や貪欲や、破壊の為の破壊であるならば、血の一滴までも戦って行かなければならず、裏切る者に対しては血の復讐を以てて報い、全員玉(三面へつづく)